

漢字 體系的 教育方法 一考察 ()

(II)

한글과 漢字의 体系的 教育方法의 一考察(Ⅱ)

— 조선어학회 지은 국어책과 英·日語 教科書의 분석을 통해 —

南 廣 祐
(名譽教授)

A Study on Systematic Teaching Methods of Hangŭl and Chinese Character <Ⅱ>

Nam, Kwang Woo
(Emeritus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is the continuation of "A Study of Systematic Teaching Methods of Hangul and Chinese Character (I): Through an Analysis of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the Enlightenment Age" (『Omun-Yŏngu』 50, Seoul: Ilchogak, 1986).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systematic teaching methods of Hangŭl and Chinese Character through an analysis of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1945) by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and the textbooks of English and Japanese languages.

序

필자는 "한글과 漢字의 体系的 教育方法의 一考察 [I] — 開化期 教科書의 분석을 통해" 를 쓴 바 있다.¹⁾

本稿는 그 續編이다. 조선어학회 지은 국어책이라 함은 1945년 11월 6일 발행된 '한글 첫 걸음'과 1945년 12월 30일 발행된 '초등 국어교본'을 말한다.

1) 語文研究 50호.

ㅁㅣ 미 미나리

ㅊㅣ 치 치마

ㅋㅣ 키 키

아버지 바지. 어머니 치마.

어서 가자. 저리 가자.

三.

p.4 ㅇㅑ 야 아이야

ㄴㅑ 나 아니나

ㄹㅑ 라 가라

ㅇㅑ 여 여자

ㅎㅑ 혀 혀

ㅍㅑ 껌 껌다

나가라? 나가거라.

어서 가거라. 어서 가서 자거라.

어서어서 자라거라.

여 자(女子)

四.

p.5 ㅁㅓ 모 모자 모기

ㅅㅓ 소 소나무

ㅇㅓ 오 오리

ㄴㅓ 누 누나

ㄱㅓ 구 바구니

ㄷㅓ 두 자두 구두

ㄹㅓ 루 두루마기 두루미

4 南 廣 祐

ㄷ 드 버드나무
 ㄹ 르 다르다
 ㄴ 느 느리다
 ㅋ 크 크다

버드나무가 푸르다. 소나무가 크다.
 누구누구 가시니?
 두루 가르치시더라

모자(帽子)

p. 6

五.

ㅈ ㅈ 추 교추
 ㅎ ㅎ 후 후추
 ㅌ ㅌ 투 투구

ㅁ ㅁ 묘 묘하다
 ㅍ ㅍ 표 차표 모표
 ㅎ ㅎ 효 효자

ㄱ ㄱ 꺠 꺠모
 ㅇ ㄱ 유 우유 유리

그 아이가 효자다.
 차표 사오너라.
 구두 가져오너라.
 우유 사오너라.

효자(孝子) 우유(牛乳)

p. 7

六.

벼루 조 고기
 보리 수리 조리
 호두 여우 포도
 호미 무우 도토리

마루 부모 부추
 주머니 조카 노루
 유리 우표 여러가지

호두나무가 크다.
 보리가 자라오.
 고기가 노오.
 호미 가지고 오너라.

부모(父母) 우표(郵票)

以上을 검토해 보면 6課까지에

1. 字母 24字는 모두 한 차례 이상 나온다. 적게는 한두 차례, 많은 것은 7, 8 차례 나왔다.
2. 基本音節表에 따르면

ㄱ	가 거 고 구규그기	7
ㄴ	나 너 노 누 느니	6
ㄷ	다 더 도 두 드	5
ㄹ	라랴러 루 르리	6
ㅁ	마 머 모묘무 미	6
ㅂ	바 버벼보 부	5
ㅅ	사 서 소 수 시	5
ㅇ	아 어여오 우유 이	7
ㅈ	자 저져조 주 지	6
ㅊ	차 추 치	3
ㅋ	카 크키	3
ㅌ	토투	2
ㅍ	포표푸	3
ㅎ	하 호효후	4

68

68字의 音節字가 나오지만 여기에 基本音節表를 활용하는 傳統的 教育 方法이 加味 된다면 基本音節表에 나타나는 音節字는 大體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기까지에는 겹글자나 받침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4. 欄外에 여자(女子) 모자(帽子) 효자(孝子) 우유(牛乳) 부모(父母) 우표(郵票)가 나오는 것은 漢字말임을 보이고 그 읽기 정도를 지도하는 데 主眼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6 南 廣 祐

p. 8 ㅈ ㅈ ㅈ ㅈ ㅈ ㅈ ㅈ

p. 9

ㅅ ㅅ 새 새 나라
 ㅂ ㅂ 배 배 나무
 ㄱ ㄱ 개 개 구리
 ㄴ ㄴ 내 내 시
 ㅁ ㅁ 매 매 미
 ㄷ ㄷ 대 대 추

ㅇ ㅈ 얘 얘 야

새가 우오.
 개가 가오.
 배가 크오.
 얘야, 어디 가니?

七.

p. 10

ㄹ ㄹ 려 려 수 려
 ㅁ ㅁ 맥 맥 주 맥 누리
 ㅅ ㅅ 제 제 비 제 사
 ㅅ ㅅ 세 세 수
 ㅂ ㅂ 배 배 개
 ㅇ ㅈ 예 예 사
 ㄱ ㄱ 제 제 세 제
 ㄹ ㄹ 려 려 차 려

네나 내나 다 나가자.
 차려 차려 다 가자.
 겨레 겨레 우리 겨레
 예서 제서 노래하네.

세계(世界)

八.

p. 11

九.

스니 쇠 쇠고기 무쇠
기니 피 피수

즈니 쥐 쥐
츠니 취 취

오니 의 의자 의사
흥니 회 회다 회미하다

뉘 구두냐?
마루 위에 두어라.
쥐가 기어가오.
저 모자가 회다.

의자(椅子) 의사(醫師)

p. 12

十. 口

가 | ㅁ | 감 | 감 김 담배
 | | | 감자 썸

감나무가 점점 자라오.
조심해 가져라.
그 사람 키가 참 크다.
염려해 주시니 감사하오.
바람이 잠잠하다.
저 구름이 매우 희구나.
그 아이가 참하구나.

p. 13

十一. ㅂ

즈 | ㅂ | 집 | 집 밥 접시
 | | | 탐 삼 보습

저 집이 네 집이냐?
그 접시에 담아라.

그리 급히 가려느냐?
 저기 큰 탑이 보이오.
 엽서 사 오너라.
 고기 잡으러 가자.
 점심 가지고 오너라(筆者註. 이 글은 p.12에 갖어야 할 글)

p.14

十二. ㄴ

산[·] 구운[·]밤 손
 신문[·] 건너[·]편 논

아버지는 논에 가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오.
 언니는 신문사에 다닌다.
 아침부터 대단히 분주하오.
 너 집에 간다더니 언제 가니?
 건너편 집에 손님이 오신다.
 비가 몹시도 온다.

산(山) 신문(新聞)

p.15

十三. ㄴ

칼[·] 낱[·]길 말
 발[·] 만년[·]필 설

온 나라 사람들아.
 단결이 제일이다.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자.
 우리들이 아니하면 누가 하라?
 놀지 말고 날마다 일을 하자.
 한글을 잘 배우자.
 우리 나라 글이니 잘 배우자.

만년필(萬年筆)

이런 式으로

- p.16 十四. 스
옷 갓 못 낫 엇 샷샷
短文 7로 스받침 익히기
漢字 만세(萬歲) 연필(鉛筆)
- p.17 十五. ㄱ
학교 독 먹 석필 책 묵
短文 7로 ㄱ받침 익히기
漢字 학교(學校) 국기(國旗) 애국가(愛國歌) 북(北) 백두산(白頭山)
남(南)
- p.18 十六. ㅇ
농 동무 기둥
팽이 성냥
금강산
短文 7로 ㅇ받침 익히기
漢字 금강산(金剛山) 생도(生徒) 교장선생(校長先生)
- p.19 나내너네
- p.20 十七.
과자 과일
팽이
돼지
원숭이
퀴
短文 4로 “나내너(례는 없음)” 익히기
漢字 동(東)
- p.21 ㄱ ㅌ ㅍ ㅊ ㅅ ㅆ
- p.22 十八.
까치 까마귀
뺨

10 南 廣 祐

설매

뼈

고추씨

때

떼

短文 4로 “쓰띠빠” 익히기

p.23

十九.

꼬리

뽕나무

뽕죽하다

쭈세미

쓰다

피꼬리

뛰어간다

短文 4로 “쓰띠기” 익히기

漢字 약(藥) 비행기(飛行機) 공중(空中)

p.24

二十.

파리

평

빼기

빼맨다

短文 4로 “빼 평 빼 파” 익히기

p.25

二十一. 프

앞도 앞에 앞으로 앞과

短文 7로 프받침 붙는 “무릎 숲 잎 앞 갓고 깊은 높은” 익히기

漢字 한강(漢江)

p.26

二十二. 드

받고 받지 받아 받으니

短文 7로 드받침 붙는 “받아라 꿈으면 믿음 받는다 굳으니 믿는다 돌아 듣느냐?
들어라 달고” 익히기

漢字 결심(決心) 성공(成功)

以上 p.8 ~ p.11 七~九課까지에

1. |와 複合인 겹글자 “ㄱ ㅅ ㅈ ㅊ ㅋ ㆁ ㆁ ㆁ”를 다루고
2. 漢字는 의자(椅子) 의사(醫師)가 나온다.

p.12 ~ p.18 十~十六課까지엔

1. ㅎ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7 終聲을 다루고
2. 漢字는 산(山) 신문(新聞) 만년필(萬年筆) 학교(學校) 국기(國旗) 애국가(愛國歌) 북(北) 백두산(白頭山) 남(南) 금강산(金剛山) 생도(生徒) 교장선생(校長先生)이 나온다.

p.19 ~ p.20 十七課에서는

1. 나머지 겹글자 “ㄱ ㆁ ㆁ ㆁ”를 다루고
2. 漢字는 동(東)이 나온다.

p.21 ~ p.24 十八課~二十課까지에

1. 된소리 “ㄱ ㆁ ㆁ ㆁ” 등을 다루기로 되어 있는 데 “ㅈ” 用例는 보이지 않는다.
2. 漢字는 약(藥) 비행기(飛行機) 공중(空中)이 나온다.

p.25 ~ p.31 二十一課~二十七課까지에

1. 7 終聲 外的 ㅎ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을 다루고
2. 漢字는 한강(漢江) 결심(決心) 성공(成功) 강산(江山) 무궁화(無窮花) 서(西) 항구(港口) 대문(大門)이 나온다.

p.32 ~ p.40 二十八課~三十五課까지에

1. 一切의 ㅎ받침 쌍받침을 다루고
2. 漢字는 태평양(太平洋) 작년(昨年) 시(詩) 십원(十圓) 내일(來日) 삼천리(三千里)가 나온다.

以上으로 韓字 字母 子音(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母音(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받침(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과 複合인 겹글자(ㄱ ㆁ ㆁ ㆁ)와 받침(ㄱ ㆁ ㆁ ㆁ)이 모두 다루어져 있다.

p.41 ~ p.49 三十六課~四十一課까지엔

- 三十六 자장노래
- 三十七 속담
- 三十八 여우와 닭 漢字말 산중(山中)
- 三十九 고향 하늘
- 四十 우리 나라 漢字말 역사(歷史)
- 四十一 우리의 할 일

로 되어 있다.

- p.53 十四 어린 아이 슬기 놓으시면서 곧 일전(一錢)
- p.54 밝아졌소
- p.55 十五 해
- p.56 十六 장날 닭
- p.57 十七 욕심 많은 개 싫어서 없어졌소
- p.58 十八 일년 일년(一年) 정월(正月)
- p.59 十九 사촌 언니
- p.60 二十 설 몇 좋아
- p.62 二十一 약 넣어 그렇게 많다 많이 약(藥)
- p.63 二十二 검둥이
- p.66 二十三 세배 높이 흥지 창가(唱歌) 국기(國旗)
- p.67 식(式)
- p.68 二十四 심부름 갖다
- p.70 二十五 우리 닭 수닭 암닭 좋게 낳아서
- p.71 세금(稅金)
- p.72 二十六 맴맴
- p.73 二十七 코끼리 어떻게 그렇지 않소
- p.75 二十八 편지 읽어 엽서(葉書)
- p.77 二十九 사방 사방(四方) 동(東) 서(西) 남(南) 북(北)
- p.78 三十 우리 나라 늙은이 젊은이 조선(朝鮮) 독립(獨立) 남자(男子) 여자(女子) 세계(世界)
- p.79 좋은 이렇게 좋아서 좋고
- p.80 三十一 산술 공부 맞았다 옳다 이(二) 삼(三) 육(六) 구(九) 십오(十五) 팔(八)
- p.81 맞았다 앓았는데 놓아 몇 없이 칠(七)
- p.82 三十二 법 팬창졌느냐 없다 좋고 되었었니 했었다
- p.85 三十三 친절한 가게 원(圓)
- p.86 값 없소 사(四)
- p.87 굶일
- p.88 三十四 싸락눈 같은 밑에서 받아
- p.89 三十五 입에 붙은 표주박 있어 붙어서 깨달고
- p.92 三十六 쌀과 콩 알맞아서 외국(外國)
- p.93 三十七 우스운 이야기 붙이지요 묶어
- p.94 쫓아 잡게 이틀날
- p.93~p.94 까맣게 놓고 흥지

- p.96 三十八 우리 집
- p.97 닭에게 말았소 끝나면
- p.99 三十九 사시 사시(四時)
- p.100 四十 밤 어했나
- p.101 四十一 온돌
- p.102 四十二 달 따러 가자
- p.103 四十三 한석봉 한석봉(韓石峯) 삼백(三百) 개성(開城) 산중(山中)
- p.104 싶던지
- p.105 갑습니다
- p.106 굶었다
- p.107 일심(一心)
- p.108 四十四 비
- p.109 四十五 쥐의 의논 없겠느냐
- p.110 없었소

以上으로 p.38 까지 나오지 않았던

1. “ㅌㅎㄴ리래래라비쓰”의 9 받침이 더 나오나 “기리래래” 받침은 나오지 않는다.
2. p.43 五課부터 처음으로 漢字가 나오는데 “팔월(八月) 산(山) 강(江) 학교(學校) 선생(先生) 김(金) 운동장(運動場) 생도(生徒) 일전(一錢) 일년(一年) 정월(正月) 약(藥) 의사(醫師) 창가(唱歌) 국기(國旗) 식(式) 세금(稅金) 엽서(葉書) 일기(日氣) 사방(四方)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조선(朝鮮) 독립(獨立) 남자(男子) 여자(女子) 세계(世界) 이(二) 삼(三) 육(六) 구(九) 십오(十五) 팔(八) 칠(七) 원(圓) 사(四) 외국(外國) 사시(四時) 한석봉(韓石峯) 삼백(三百) 개성(開城) 산중(山中) 일심(一心)”과 같이 日常生活에 親近한 말만을 가려내어 그 指導에도 留意한 듯이 보인다. 46單語 66字다.
3. 基本音節表는 보이지 않는다.

위 ‘한글 첫 걸음’과 ‘초등 국어교본 상’의 ‘편찬 경위’와 ‘反切式’을 버리고 字母式 指導法을 취한 이유를 “한글학회 50년사”에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말 되찾은 기쁨

어둡고 괴롭던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8·15 해방! 그 얼마나 벅차고, 기쁜 일이었던가? 해방과 더불어 조국과 나라말을 다시 찾은 기쁜 소감의 보기로 한글 학회 사건의 關係자의 말로써 한다면 다음과 같다.

* 全書, pp.281-303.

다시 삶의 기쁨²⁾

…… (앞 줄임) ……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살고, 우리글로 살자! 먹기도 우리 힘으로 먹고, 입기도 우리 힘으로 입자! 모든 살림은 우리 힘, 우리 것으로 살아 가자! 다시는 남의 힘을 바라지 말고, 남의 것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 힘! 우리 것! 이 부르짖음과 이 외침이 온 천하에 들린다. 이 때를 맞아 잠들었던 우리 한글도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에 발맞추어 힘차게 걸음을 떼어 놓았다.

오! 이것이 삶의 기쁨이다. 한글의 다시 살아남! 삶의 기쁨! 가슴이 벅차고 핏줄이 뛰는다. 우리의 한글이 한참 잠겨서, 기르고 닦았던 붓들을 다시금 가다듬어, 바른 길을 열어가며 그릇 것을 물리치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빛나게 하기와 힘 있게 하기를 저의 할 일로 삼아 억세게 나아가리라.

우리 한글은 이제 살아났다…… (뒤 줄임) ……

1945. 11. 27.

그리하였은즉, 우리말은 왜말에 눌러서 병들고 시들고 허덕이며, 젊은이와 어린이는 숫제 배우지도 못한 이가 많았고, 우리 글자는 물론 맞춤법도 몰라서, 애답게 여기기만 하는 한심한 상태였으니, 우리말 교재를 요구하는 소리는 바로 아우성 그것이었다.

(2) '한글 첫 걸음'을 엮음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휴교 중에 있던 전국의 각급 학교들이 1945년 9월 17일에 내린 미군정 당국의 '일반 명령 제 4호'³⁾로써 전국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동년 9월 24일과 10월 1일에 각각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군정에 의해 문이 열린 초·중등학교도 공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아주 부족했던 까닭이고, 우리말, 우리글로 된 교과서가 한 권도 없었던 까닭이다.

이리하여,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일제로부터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기에 갖은 고생과 많은 희생을 해 온 한글학회 회원들은 힘을 모아 '미군정청 학무국이 주최하는 초·중등학교 교사 한글 교육을 맡아 한글 강습을 시키는 한편, 미 군정 바로 전에 열린(1945. 8. 25) 한글 학회(당시 조선어 학회) 긴급 총회는, "교과서가 없어 공부 못하는 초·중등학교의 시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계·문필계·언론계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얻어 우선 임시 국어 교재를 엮기로" 결의하고, 동 9월 초에 한글 학회 안에 '국어 교과서 편찬 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편찬 위원을 뽑아서, 교과서 편찬의 책임을 맡겼다.

국어 교과서 편찬 위원

李熙昇(집필) 李大중(집필) 張志暎(집필) 李浩盛(집필) 尹聖容(집필) 李崇寧(집필) 鄭寅承(집필) 尹在千(집필) 尹福榮(집필) 方鍾鉉(심사) 李世禎(심사) 梁柱東(심사) 趙炳熙(심사) 朱재중(심사) 李克魯(위원) 崔鉉培(위원) 金允經(위원) 金炳濟(위원) 趙潤濟(위원) 李殷相(위원)

2) '한글' 제 11권 1호(통권 94호), pp.2~3.

3) 오 천석, '한국 신교육사,' pp.389~399.

이들 교과서 편찬 위원들은 곧 각급 학교 국어 교과서의 편찬에 착수하여, 우선 응급 대책으로 각급 학교 각 학년 공용인 ‘한글 첫 걸음’을 비롯하여 초·중등 학교의 국어 교과서의 편집이 다 되어 갈 무렵, 때마침 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책값의 저렴과 배본 균형을 기하기 위한 이유로 그 편집 중인 각종 교과서의 발행권만을 군정청에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이에 우선 ‘한글 첫 걸음’을 엮어, 군정청 학무국에 무상으로 넘겨서 1945년 11월 6일 출간되었고, 동년 11월 20일에, 한글 학회는 ‘초등 국어 독본(상)’과 함께, ‘한글 첫 걸음’을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교과서 증정식에서 아놀드 군정 장관에게 증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군정 장관은 다시 국민 학교 남녀 학생에게 증정하는 상징적인 절차를 밟고, 곧 전국 초·중등 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글 학회가 교재가 없어서 가르칠 수 없는 교육 공백시대에 맞춰서 나온 ‘한글 첫 걸음’을 편찬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윤 재천은 그 ‘한글 첫 걸음’ 출간의 기쁨을 ‘신교육 서설’⁴⁾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글 첫 걸음’ 발행의 기쁨

…… 9월 초순에 임시 교재 편찬의 의(議)가 성립하자, 한글 학회의 일원에 참가하여, ‘한글 첫 걸음’을 집필하였습니다. 서기(暑氣)가 아직 강렬할 때에 방장 오실(方丈奧室)에서 약 2주일 농성(籠城)한 환희, 우리 민족의 국어 교재로 제일 먼저 탄생한 것이 이 ‘한글 첫 걸음’이었습니다. 감격에 넘쳤다. —아닙니다. 눈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래 줄임) …

그리고, 미 군정 당시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오 천석은 이 ‘한글 첫 걸음’에 대하여

해방 직후 한글을 보급하기 위하여, 한글 학회 회원들이 만든 것으로서, 짧은 기간 내에 한글의 기초를 배우기에는 호적한 소책자이었다.

고, ‘한국 신교육사’⁵⁾에 기록하였다.

(3) 주입적 자모식 편찬 방식

이상과 같은 ‘한글 첫 걸음’의 내용(서-머리말과 차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광복된 새 나라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거의 잃어버렸던 우리말, 우리글을 도로 찾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글 첫 걸음’의 편찬 취지가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바르게 한글을 배우게 하느냐 하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한글 첫 걸음’이 한글을 더 짧은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주입적 자모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본시 주입식이나 자모식 지도 방법은 글자의 분석적인 지도 방법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그들의 심리적인 면을 무시한 방법이어서, 도리어 어린이들의 학

4) 윤 재천 지음(1946. 11. 7).

5) 오 천석, ‘한국 신교육사,’ pp.389 ~ 399.

습 흥미를 잃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좀처럼 어린이의 학습 지도에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나, 한글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 우선 머리에 주입시키기에만 맞춘 책이었다.

그리고, 당시 교육자나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국민은 편집 방식의 검토를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반갑게 맞아 들이기만 하였었다.

(가) '초등 국어' 편찬 대행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글 학회가 국어 교과서를 엮음에 있어서, 국어 교과가 모든 교육의 기초 교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말, 우리글을 하루라도 빨리 찾으려는 생각도 아니할 수가 없었다. 곧, 우리의 국어 교육이 해방의 감격과 더불어, 우리 말과 글을 통한 우리의 얼을 다시 찾으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 '초등 국어 교본(상)'을 뒤이어서 1946년 1월 15일에 발행된 '한글 교수 지침'(문교부 지은) '머릿말'에,

'한글 교수 지침'의 '머리말'

모든 박해를 받아 고난의 잔명(남은 목숨)을 간신히 보전하여 온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은 세종 대왕께서 '훈민 정음'을 반포하신 지 제 500년이 되는 오늘날을 당하여 다시 광명(밝)한 천지로 나와 자유의 길을 걷게 되니, 우리 민족의 피가 끓고, 우리의 말과 글을 사랑하는 열정(熱情)이 있는 이로서, 뉘 아니 기뻐하랴? 독립의 종소리가 한 번 일어나자, 방방곡곡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모여드는 그들의 열성에 뉘 아니 감격하랴? ⁶⁾

라고, 당시 국어 교본의 근본 방향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한글 첫 걸음'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빨리 익히기 위한 국어 교육을 하기 위하여, 광복 후 첫 교과서로서(곧, 각급 학교의 공통 교과서로서 쓰기 위하여) 발행됐듯이, 이 '한글 첫 걸음'에 뒤이어서 널 '초등 국어 교본(상)'의 편찬도, '초등 국어 교본(상)'이 국민 학교 초급 학년용 국어 교과서로서 초보 교재이니만큼, '한글 학회 교과서 편집 위원'들은 '한글 첫 걸음'과 같은 편찬 방침을 세우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한글 공부의 방법이었던 반절식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모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편집을 하였었다. 그 '초등 국어 교본(상)'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

(나) '초등 국어 교본 교수 지침서'의 편찬

그리고, 이 '초등 국어 교본(상)'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자모식 교수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 교수 지침' ⁸⁾에 한글 자모의 지도 방법을 풀이하였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골자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한글 학회 지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 '한글 교수 지침'(1945. 12), '머리말'. 박 방의 지음, '국어 교육' 현대 교육 총서 출판부 발행, p. 2에서 다시 인용.

7) 오 천석, 앞에 든 책, pp 5~6에서 인용.

8) 조선어 학회 지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 1945. 1. 25), p.45.

‘초등 국어 교본 교수 지침서’의 내용

한글의 본질은 우리말 어음(語音)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재래의 가가식, 즉 음절 문자화한 지도법을 버리고, 40자모만 충분히 아동에게 이해시키도록 전력을 쓸 것이다.

따라서, ‘가’, ‘밤’, ‘닭’ 등 음절을 한 글자로 지도하지 말고, ‘가’는 ㄱ(기역 자)과 ㅏ(아 자)의 두 자로, ‘밤’은 ㅂ(비읍 자)과 ㅏ(아 자)와 ㅓ(미음 자)의 석 자로, ‘닭’은 ㄷ(디귤 자)과 ㅏ(아 자)와 ㄹ(리을 자)과 ㄱ(기역 자)의 녑 자로 각각 분리하여 지도할 것이다.

예를 들면, ‘book’이 소리는 한 음절이나, 이것은 녑 자로 보는 것과 다름 없다. 한글 자태(字態)가 로마자와 달라, 한 음절이 한 글자 같이 표시되는 관계는 여기 이견(異見)을 가진 이도 있으나, 새로 배우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한 음절의 단위가 명백하므로, 로마자의 철자보다도 도리어 독파(讀破)에 편리할 뿐이다.

(대) 자모식 지도법의 이유

위에 풀이된 바 자모식 지도 방법을 요약해 보면, 한글이 낱내 글자(음절 문자)가 아니라, 낱자(단음 문자)인 점을 말하고, 한글의 자모 24자와 겹글자 “ㄱ, ㄷ, ㅌ, ㅍ, ㅈ, ㅊ, ㅋ, ㆁ, ㆅ, ㆆ, ㆏, ㆐, ㆑, ㆒, ㆓, ㆔, ㆕, ㆖, ㆗, ㆘, ㆙”의 16자의 소리도 각각 독립한 자모와 같이 보고, 도합 40개의 음만을 확실히 지도하면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된 것이다.

英語教育도 alphabet 指導부터

英語를 적는 로마자는 26字에 불과하고 로마字는 同一字를 여러 가지로 발음한다. 一例로 ‘a’ 字의 경우

able[ei] ability[ə] accent[æ] air[ε] all[ɔ:] art[a:] Aesop[i:] any[e]
area[εə] au[o] ay[a] aery[i]

와 같이 單語에 따라 발음이 다르므로 個別字의 발음을 익힌다는 것이 그리 큰 意味가 없다. 文章부터 출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英語 교과서는 第1卷頭에 alphabet 一覽表가 있는 것이다. 역시 個別字의 이름이나 발음指導나 쓰기 指導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나라 英語教育의 定石이 아닌가 한다.

High light

A. Structure

This is Yunhi

How are you this evening ?

B. Words and idioms

afternoon	morning	Hi
are (be)	Mr / Miss	Fine
do	Mrs.	Thankyou
evening	one	Thanks

우리 나라 舊 英語教科書의 첫머리
 現行 英語教科書도 卷 1 卷頭에 alphabet 一覽表가 나오고 첫課에 ‘Good morning, Inho’
 가 나오는데

Listen :

- ① morning
 afternoon
 evening
- ② hello
 How ... ?
 fine
- ③ good-bye

로 시작되어 곧 文章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現場教師의 證言에 의하면 역시 alphabet 의 읽기와 大文字 小文字의 쓰기부터 指導한다는 것이다.

Nelson Grammar 시리즈 1 ~ 5 卷은 단계적으로 7 ~ 12 세에 배우게 되어 있는 책인데 그 卷 1 의 目次를 보면

大文字와 小文字	페이지	4
알파벳		5
알파벳 順序		6
文章		7
文章 : 大文字와 마침표		8
文章 : 뜻이루기		9
名詞		10

의 順으로 되어 있음을 본다. 역시 文字指導가 먼저다.

日語教育도 ひらがな부터

日本の 경우는 어떠한가. 日語를 적는 假名는 46字(51字中 いうえ重出, 종래의 ゐ를 い, ゑ를 え로 쓰므로)다.

濁音 ‘がざだば’ 行 20字(中じ와ぢ, ず와づ는 오늘날 발음이 같음)와 半濁音 ‘ぱ’ 行 5字 모두 합해야 71字에 きゃ きゅ きょ 등 拗音표기 12行×3 = 36까지를 合算한다 해도 文字學習의 부담은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의 文字教育에 대한 配慮는 참으로 철저하다.

그들 小學校 國語教科書(光村圖書とくごー上かざぐるま, 1981 발행)를 보면 첫머리에

たかい たかい みえる みえる
 あおい そら くもの うえ

가 나온다. 분명히 文章으로 시작되어 있다. 그러나, 가만히 분석해 보면 ‘たかい’에서 ‘あい’ 母音, ‘みえる’에서 ‘えう’, ‘あおい うえ’에서 5個 母音이 모두 登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높고 푸른 하늘’로 어린이의 가슴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p.35까지는 ひらがな字가 전부 한 번 以上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ひらがな 一覽表가 나온다. 자세한 것은 뒤로 미룬다.⁹⁾

日本小學校國語科用教科書(光村圖書 발행)의 一考察 — 文字教育의 側面에서 —

오늘날 日本의 文字體系는 漢字·히라가나(平假名)·가다가나(片假名)·로마자·아라비아數字의 5개의 文字體系가 混用되고 있다.

- 漢字 = 주로 自立語의 概念을 나타내는 部分
- 히라가나(平假名) = 表音的 表記
- 가다가나(片假名) = 動植物名·擬聲語·外國語音·外國人名 地名(원자註 韓國·中國 등 除外) 其他 音を 적은 것을 強調하고 싶을 때
- 로마자 = cm, g, P·K氏 등
- 아라비아數字 = 橫書文字中 數量表示

日本小學校 國語科用 教科書 光村圖書¹⁰⁾

이름	總面數	本文面數
1 上 かざぐるま	100	95
1 下 ともだち	88	84
2 上 たんぼぼ	120	111
2 下 赤とんぼ	120	113
3 上 わかば	120	111
3 下 あおぞら	120	109
4 上 かがやき	136	120
4 下 はばたき	136	120
5 上 銀河	144	129
5 下 大地	144	129
6 上 創造	144	129
6 下 希望	136	120

9) 『日本 小學校 國語科 教科書(光村圖書 발행)의 一考察』— 文字教育의 側面에서 本攷.

10) 1981년 발행. 모두 縱組, 1學年用 4·6倍版, 2年 以上 菊版.

ひらがな指導

1. 1上 p.35까지에 전부 한 번 이상 나온다. pp.36~37 平假名 一覽表가 나온다.

あいうえお かきくけこ 式
あかさたな はまやらわ 式

으로 읽기 指導를 하고 있다.

2. 文字指導에 들어가자 첫페이지(p.7)에 “たかい たかい みえる みえる”가 나오고 다음 p.8에 あおい そらくもの うえ”가 나와 ‘あいうえお’ 5母音を 다루도록 細心한 配慮를 해 있으며 pp.16~17에 ‘あいうえお’의 發音하는 口모양을 그리고(開口圖)는 해당 單語(あり いす うし えき おに)를 들어 발음연습을 꾀하고 있다.
3. p.18에서 처음으로 濁音글자(だかば)가 나온다.
4. p.23에서 처음으로 半濁音글자(ぱ)가 나온다.
5. p.24에서 ‘かき かぎさる ざる ふた ぶた まと まど’처럼 清濁音 分別하는 教育을 고려하고 있다.

6. p.26에서 おかあさん
p.27에서 おじいさん
p.28에서 おねえさん おとうと
p.29에서 ごろう おにいさん
과 같이 長母音指導를 하도록 하였다.

7. p.32에서 いっぱい はいって
p.34에서 しまった いっぱん
과 같이 促音指導를 하도록 해 있고
p.37에서 きつね きっぶ
てつぼう てっぽう
やつで やっこだこ

처럼 ‘つ’와 促音 ‘っ’의 발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配慮해 있다.

8. p.38에 きゅうしよく
p.40에 けんしゃ ちゃわん
せんしゅ やきゅう
としょ しょうゆ
いしゃ いしゃ 구별
와 같이 拗音(やゆよ) 指導를 하고

24 南 廣 祐

p.40 에 おとを わとは えとへ

와 같이 助詞로 쓰이는 ‘を は へ’의 指導를 하도록 해 있다.

- 9. p.96 ひらがな 一覽表 各 ひらがな字 처음 나온 페이지 明示
 きゃ きゅ きょ 式

カタカナ指導

- 1. 1 上에서 p.35 까지에 ひらがな를 다 다루고 p.66 부터는 漢字가 登場하는데 カタカナ는 p.80 부터 처음으로 登場한다.
- 2. 1 上~ 2 下까지에 カタカナ 一覽表가 나오는데 濁音·半濁音 きゃ きゅ きょ 式 拗音表도 나온다. カタカナ 教育은 2 下까지에 完成된다.
 1 上 46 字中 21 字 濁音 4 字 半濁音 3 字
 1 下 46 字中 21 字 濁音 5 字 半濁音 2 字
 半濁音字 5 字(パピブペボ) 完成 5 字
 2 上 46 字中 4 字 濁音 6 字

△ 아직 배우지 않은 字

ゲズゾヂヅ 5 字
20 字

p.114 促音 쓰는 法 ツ ビスケット
길게 빼는 소리의 적는 法 - ハーモニカ

- 2 下 p.114 促音 쓰는 法 ツ トラック
길게 빼는 소리의 적는 法 - ページ

漢字指導

- 1. 1 上 p.66 부터 漢字登場
 日山(66), 土木一つ(67), 目(70), 口(71), 金(73)
 1 上 p.74 かんじの べんきょう(漢字 공부)
 (一) 그림과 漢字(えとかんじ)(74~75)
 象形字 山木川水月口手田
 (二) 數와 漢字(かずとかんじ)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本 人(數量單位로 쓰이는 글자로서 나옴)
 1 上 pp.98~99 新出漢字의 읽기 등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例: 漢字(かんじ) 읽기(よみかた) 筆順(かきじゅん) 페이지
 日 ある日 日 口 日 日 66

2. 1下~5下까지는 앞冊까지에서 배운 漢字의 音訓을 들어 놓아 反復練習에 便케 해 있고 讀みかえの 漢字(새 읽기의 漢字)라고 해서 새로 읽는 法과 使用例를 보이고 있다.

例: 漢字 읽기 使用例 페이지
日 nich 日よう日 39

또한 新出字의 筆順을 보이고 있다.

3. 2上~5下까지는 △표는 아직, 배우지 않은 讀法(まだ習っていない 讀み方, 太字は送りがな), ※표는 中學校 以上에서 배울 讀法이라 해서 표시해 있다. 能力에 따라 더 前進할 수 있도록 配慮한 것으로 보인다.

例: 音 おん
 ※いん
 おと
 △ね

4. 6上에는 6年間に 배울 漢字 996字라고 해서 音訓을 들고 字典찾기 指導를 위해 部首劃數를 보여 있다.

例: 惡 フク 心 11
 ※オ
 わるい

6下에는 6년간에 배운 漢字 996字라고 해서 部首別 總劃數順으로 排列하고 音訓을 달아 있는데 ※표를 해서 中學校 以上에서 배울 讀法도 보이고 있다.

冊	新出漢字	各學年別 漢字	새 읽기 漢字	앞 冊에서 이미 배운 漢字	教育漢字 計
1上	31字				
1下	45	76字	10	31	76
2上	88		10	76	164
2下	57	145	24	164	221
3上	119		37	221	340
3下	76	195	39	340	416
4上	129		61	416	545
4下	69	198	59	545	614
5上	126		89	614	740
5下	66	192	54	740	806
6上	128		62	6년간에 배우는 漢字 996	
6下	62	190	42	6년간에 배운 漢字 996	
	996	996	487		

로마자指導

1. 로마字指導는 4學年 1・2學期에 한다.
2. 로마字로 쓴 日本말 읽기와 日本말을 로마字로 쓰기를 指導한다.
3. 4上下에 각각 로마字表가 실려 있다.
4 上에는 ひらがな와 對比한 一覽表
4 下에는 ka[kwa] si[shi] ti[chi] tu[tfu] hu[fu] sya[sha] syu[shu] syo[sho] tyu[cha] tyu[chu] tyo[cho] o(wo)…… 등 一覽表로 되어 있다.
4. 4 上에서 Sansû Kôsaku hôsô 등 긴소리 적기와 읽기, 促音 Kippu Kite 등 적기와 읽기를 指導.
4 下에서 大文字와 小文字, 人名地名 적기와 읽기, 同音語 異樣表記法과 그 읽기.
Sima-Shima hue-fue
CHIBA (TIBA)

〈未完〉

結 論

국민 학교 1, 2학년 국어 교과서로 쓰이는 ‘바른 생활’은 ‘도덕·사회’와의 統合 교과서여서 국어 교과서로서는 不適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文字教育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해방 후 '48년 문교부가 펴낸 ‘바둑이와 철수’ 이래 固守해 온 文章式은 지양되어야 하고 漢字教育이 復活되어야 한다.

文章式은 英語나 日語 教科書에서는 적합할는지 모르나 국어 교과서에는 적합하지 않다. 24字母라고 하지만 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音節字는 소리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初聲 19 × 中聲 21 × 終聲(현행 받침 28개이나 代表音은 7) = 2,793字나 되며 表意化를 지향한 현행 표기법은 字母式 音節式 單語式의 절충 방식에 의한 體系的인 文字指導를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어 교육 課程이 개편되고 새 국어 교과서가 편찬될 경우,

開化期 國語教科書

조선어학회 지은 국어책

英·日語 教科書

등이 文字教育의 側面에서 제대로 照明되어 참고되기를 바란다.

1. 한글을 體系的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教科書가 편찬되어야 한다.

單語를 활용하여 字母法 音節法의 장점을 살리면서 차차 短文을 거쳐 긴 文章으로 나간다.

우선 基本音節表의 글자를 익히게 하되 받침 없는 글자, 다음으로 ‘ㄱ’, 7 終聲, 그 밖의 接母音·홀받침(ㄷ스ㅅㅌㅍㅎ) 接받침 쌍받침 된소리 등 段階的으로 한다. 읽기·쓰기의 順으로 일단 骨格이 되는 音節字는 1~1에서 깨치도록 한다.

2. 1~2까지는 體言과 토, 用言語幹과 語尾의 구별표기, 派生語 표기, 子音同化 口蓋音化 되는 말 읽기와 쓰기까지를 가르쳐 한글指導의 대체를 마치도록 한다.

3. 1학년 1학기 6월쯤에서부터 段階的으로 漢字를 배당하여 6년 동안

學年	學期	漢字 읽기	漢字 쓰기
1	1·2	50字	—
2	1·2	100字	—
3	1·2	150字	50字
4	1·2	200字	100字
5	1·2	250字	150字
6	1·2	250字	200字
		<u>1,000字</u>	<u>500字</u>

에 900~1,000字 정도의 읽기와 450~500字 정도의 쓰기指導를 목표로 한다.

4. 文字指導와 아울러 發音指導를 위한 配慮를 1~1 교과서에서부터 한다(6월 경 부터가 적절할 듯)

5. 自由中國의 首冊처럼 文字의 體系的 指導를 위해 별도의 教科書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들은 1학년’을 改編하여 初期 文字指導의 場으로 활용하는 方案도 研究됨직하다(’86. 6. 11).